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일년 내내 성경말씀과 함께 하며”

지난 주일 성경암송대회 결선자 9명 시상식 내년 대회 암송범위 미리 발표... 야고보서로

한달 보름간 진행되어온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주일 찬양예배에 시상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그동안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각 결선을 거쳐 선발된 9명의 최종결선자들은 이날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화평상 등 각기 준비된 상과 부상을 받고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외우는 성경암송시범을 보였다.

시상식에서 이종윤 목사는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아울러

“우리 교회는 성경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강조하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많은 성도들은 유치부에서 소망부까지 망라한 최종결선자들의 암송시범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설립기념 행사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는 좀더 많은 성도들이 암송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이 지난 주일 찬양예배 때 암송시범을 보이고 있다.

음 대회에 외운 성경본문을 미리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성경암송범위는 야고보서로 전장으로 발표됐다.

이번 암송대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일년 내내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악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96추수감사절
교회설립 5주년

지난 주 교회학교 찬양대에 이어 오늘 찬양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광신 장로, 지휘 박정선 집사, 오르간 조은주, 피아노 정은영) 주관으로 교회설립 5주년기념 감사 및 ’96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오늘 찬양의 주제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모짜르트(W. A. Mozart), 프레델(H. W. Fredell), 파머(H. Farmer), 구노(Ch. Gounod)등이 작곡한 영광송(Gloria)들을 합창하게 된다. 또한 소프라노 최미현과 베이스 서준성이 각각 김두환 곡 ‘내선

한 목자’와 프랭크(C. Frank)곡 ‘생명의 양식’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성가곡을 독창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인 김광신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을 한 곳에 모아 드리는 오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 다음 주일 행사 ◆

감사예배로 드리는 I·II·III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제 4대 장로 장립 및 취임식과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신임서리집사 교육

지난 주간 면접을 마친 1997년도 신임서리 집사 후보는 다음의 3차 중 1회의 교육에 참석

비전2000 승전 일주일 앞으로

“전교인 만남의 주일”



’96비전 2000 운동 승전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때에는 50일간의 행진을 마치며 승전보고를 한다.

지난 10월에 시작한 비전2000 운동 기간 중 성도들은 매주일 교구별 혹은 교회학교별로 노방전도를 하였으며, 그밖에도 축호전도와 태신자 전도 등 여러 모양의 전도를 하였다.

또한 연속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에 힘썼으며 찬양예배가 마친 후에도 합심기도회로 모였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의 주일”이다. ’96비전 2000 운동 기간 중 전도를 받은 사람, 태신자 그리고 각 부서의 잃은 양들을 모두 찾아 한자리에서 만남을 갖는다.

알림: 위원회 명단 추가

지난 주 게재된 명단 중 누락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정병무

새가족부: 지도 이순환, 부장 윤봉준

하도록 한다.

- 1차: 20일(수) 12:30 ~ 15:00
- 2차: 20일(수) 20:30 ~ 22:30
- 3차: 21일(목) 06:00 ~ 07:00

▶지난 주 신임서리집사 면접광경



창세기
강해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창세기 45장 24절)

이종운 목사

요셉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형들에게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한 말은 자칫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버릇없는 어린 아이에게 부모나 어른들이 주는 권면의 말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매우 진지합니다.

형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급히 가서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45:9). 형들에게는 임시적으로 옷, 곡식 등 필수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는 본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준 새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하셨습니다.

1. 형제간의 갈등

요셉은 빈틈없는 성격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는 본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탁을 할 당시 형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옛 성품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유다, 시므온, 레위, 르우벤 모두가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선 그들이 정탐꾼으로 잡혀 무서운 분위기의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요셉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다투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은 아버지께는 좋은 소식이나 그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설명하려면 형들의 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 당시 거짓으로 꾸며던 요셉의 피묻은 옷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홉에게 누가 어떻게 현재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 아마도 형들은 그때 상황을 말하면서

“너 때문에”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 다툼의 원인

야고보서 4장 1-10절은 싸움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다툼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약4:1-3).

싸움은 우리의 내부에서 제어할 수 없는 욕심에 의해 일어납니다. 다툼은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식 작용이 아닌 감정작용에 속합니다.

3. 치유방법

형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들은 요셉이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한 말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22년간 다투던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투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4:5-10)

하나님께 순복함이 다툼을 그치는 첫번째 방법이 됩니다(약4:7). 요셉은 형들로부터 피

해를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 옳은 것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와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하셨습니다(약4:7).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이에게 마귀는 덤벼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던 요셉에게 시험이 닥친 것이나 충성스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게 하는 역사는 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면 다툼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다툼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약4:8). 이것은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약4:8-10).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투지 아니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낮은 데로 내려가야”

인생살이는 곧 자리다툼이다. 집을 짓는이는 좋은 터를, 취직하려는 이는 요직에, 결혼도 명문가를 찾아하려고 눈독을 드리고 공방전을 벌인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명예를 찾아 묻히기를 바란다. 다행히 뜻을 이루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이를 성공자 또는 승리자라 하고 그렇지 못한이를 실패자 열등자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다툼을 하면서 서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부모 역시 자식을 위하여 그러한 청원을 주님께 드린 적도 있었다. 오늘날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가장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다. 말귀유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여러 고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도와줄 이웃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고 가르치신다(롬12:16).

지상강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 글은 11월 4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최재덕 교수(서울여대)가 강의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살도록 인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과 치유의 기적을 동시에 행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현실적 삶의 문제(귀신들린 자 치유, 구제헌금 등)를 병행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에 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뿐 아니라 고기가 사는 물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대사상의 강한 조류, 우리 주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화의 심연에 복음의 낚시줄을 드리워야 한다.

1. 염두에 두어야 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상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의 절대성과 진리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기독교가 마치 배타적인 것인양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현상성과 본질성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전쟁, 평화, 인권문제 등을 위해서는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론을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롬8:13). 이 절대성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가치, 정신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부인되는 곳

에서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는 주장을 양보하신 적이 없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에게 죽음의 압력 밖에 없다는 주장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

2. 신세대 선교전략 수립

바빌론시대의 문서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모양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구약성경 중에서 젊은이를 독자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잠언도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점이 있다. 특별히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오늘날 신세대는 종교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흥을 낙으로 삼는 세대에 젊은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가 해결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접근할 때 세대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밝은 면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에는 그들에게 고난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지만 기쁨, 웃음, 찬양, 감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문화적 지도력 개발

최근 문화선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무시한 내세적 구원, 사회성을 결여한 개인주의적 구원만을 찾는 기독교는 그 문화적인 무감각을 비판받게 되어있다.

기독교문화, 기독교적 놀이문화가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영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리차드 니버의 말대로 기독교는 이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인은 누구나 대중매체의 위력을 실감한다. 기독교인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좌시할 수 없다. 지나치게 청교도적인 문화관은 현대인들에게 자기분열적 자세나 세상부정적 고립주의를 낳게 할 수 있다.

4. 선교현장 참여 장려

선교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자

기 신앙을 확인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장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변화된다. 참여와 실천은 신앙적 성숙을 가져온다.

5. 예배의식의 변화와 개발

현대인이 선호하는 문화를 예배의식에도 수용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든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6. 드러내는 구제·봉사활동

예수님 당시에는 외식하는 이들 때문에 구제나 봉사를 남이 모르도록 하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교회가 돕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 통계를 내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칫 기독교의 사회활동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등불을 켜서 만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켜는 일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결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사회가 정보화·도시화 되면서 세속주의와 문화적 타락 양상이 심화되고 이단사상이 성행하며 가정분열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은 더욱 각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며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탁월한 삶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다락방 모임을 위한 조언 몇 가지

“다락방 중창단을 만들어 보자”

1. 다락방 모임을 가질 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함께 모이자.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모임 때 다락방 모임을 더욱 활기있게 운영할 수 있다.
2. 다락방 모임에서 찬송을 많이 하도록 하자. 찬송은 우리의 영적 활력소가 된다. '다락방 중창단'을 구성하여 수준높은 찬양을 드리도록 연습하는 것도 좋을 듯.
3. 금년 초에 세운 다락방의 목표를 돌아보고 남은 기간동안 그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자. 특별히 새가족에게 관심을 쏟고 부부 중에 혼자만 교회에 나오는 가정은 집중적인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말자.

목사로서 나는 설교를 하다보면 회중들의 눈빛에서 빛가지를 읽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주든지 하려면 재미있게 하라는 요청의 눈빛이다.

다락방 모임에서는 이런 것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모이는 시간, 끝나는 시간 등을 정확하고 규모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11월 6일 다락방장공부에서 이종윤 목사의 권면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김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설지어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을



- 1 유치부 어린이들의 성경암송과 찬양
- 2 “꼭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꼭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사랑부 찬양대
- 3 “넌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처며” 성도들의 찬양에 맞추어 아름다운 부채춤
- 4 아직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전심으로 드린 탁아부 어린이들의 찬양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6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㉔

전도자	태신자
이종운	유성룡
김태기	여수혜 이 욱 정양금
오정수	조원철 이순옥 조예진
이영희	이현정 김석환
김영준	조영원 지옥자
박이준	박경준 서용선 박재현
박용균	이봉규 원운양 박순균 박광배
박진혜	조경화 송근계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1.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2.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4.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6.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7. 우리 교회와 농어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 초대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대학부는 올해 초 회원 150명 출석을 목표로 하고 그간 전도와 기도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6비전2000운동에 맞춰 대학부 총동원전도집회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잔치에는 그동안 대학부회원들의 태신자들과 그간 출석이 뜸했던 대학부 친구들, 계수생들 및 오는 12월에 고등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임원들은 그동안 초청장을 발송하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년별 연극·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성경 마린한 다과와 기념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모든 리허설과 기도회도 가졌답니다. 여러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가슴 두근거리면서요.

대학생과 25세 이하의 젊은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울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대학부실(403호)에서 만납시다. 김세재(집사, 대학부 교사)

○...파택장로들은 21일 선배장로들을 초청 임직을 받기 전 마지막 교육기회를 갖는다. 장로로서의 품위와 책임에 관해 피자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이름을 감추고 헌신하려는 아들에 의해 교회는 더욱 이름다워지는 것 같다. 이번 한 주동안 성찬기세트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110원의 티셔츠를 기증한 성도들이 있었고 목회자세미나봉사자 위로비를 특별히 헌금한 성도도 있었다.

■ 목회자동정 ■

* 이종운 목사는 21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치유기적과 축사”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교회 농이인 선교 50주년 기념세미나의 강사로 참석한다. 이 목사는 최근 농이를 귀신잡힌 자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날푸른 초침』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2. 비전2000운동을 위하여
3. 삶의 현장에서 바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 다락방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